

광주·전남 핵심 산업 ‘직격탄’ 피했다

車 관세 15% 조정, 쌀·소고기 개방은 협상대상서 제외
시·도, 안도 분위기…산업별 영향 분석 대응 전략 마련

31일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 결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당초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춰졌고, 쌀과 소고기 등 민간 농축산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는 자동차, 전남은 쌀과 한우 산업과 직결된 통상 현안이었던 만큼, 지역 사회는 이번 협상이 최악의 상황은 피한 절충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했고, 쌀과 소고기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국 간 협상 타결 사실을 SNS를 통해 언급했으나, 농축산물 관련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광주는 기아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조립 라인과 300여 개의 협력 부품업체가 집적된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도시다. 이들 기업 상당수가 북미 시장과 직결돼 있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는 FTA 체제에서의 무관세에서 15%로 조정됐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12.5% 수준을 목표로

한미 관세협상 이후 주요 산업 반응		
분야	협상 결과	반응
조선	1,500억 달러 규모 협력관세조정	긍정
농축산물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음	긍정
제조업	반도체·전기차·자동차 부품 등 무역분과 2,000억 달러 규모 투자	긍정
반도체	최대국 대우 예정	긍정
서비스	최대국 대우 예정	긍정
에너지	LNG 중심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규모 구매	긍정
자동차	25% → 15%로 인하	긍정
협정	50% 유지(반도체 제외)	양립

했으나, 미국 측이 모든 품목에 대해 15% 일괄 관세를 고수하면서 결국 이 수준에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지역 산업계는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지만, 예고됐던 25%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서 최소한의 방어선은 유지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15% 관세는 유통 비용과 납품 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25%가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 미국 바이어와의 계약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던 만큼, 상황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31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완성차들이 주차돼 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15%의 관세율은 지난 4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광주시는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지역 자동차 수출 환경 변화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한우 사육 규모 전국 2위 지역으로, 쌀과 소고

기 시장 개방 여부가 지역 농업 기반과 직결된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가 이들 품목은 협상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쌀과 소고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협상 과정에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재로서는 지역 농가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전체 협상 문건이 공개되면 내용을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그간 수입쌀 의무도입 물량 증가나 소고기 검역 기준 완화 등 통상 이슈에 예민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고령화된 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 구조상,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농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협상을 통해 쌀과 소고기 시장이 유지되고 자동차 관세도 고율 부과는 피하면서, 광주·전남의 주력 산업이 일단 외형적 충격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가 가능해

졌다. 하지만 기존 무관세 체제가 변경됐고, 통상 협상이 반복될 때마다 지역 기반 산업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구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 사회는 협상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부 이행 계획과 향후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산업별 영향을 정밀 분석해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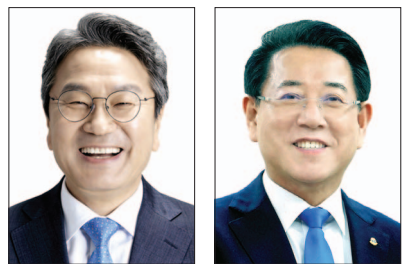
광주시·전남도 반응

강기정 시장 “차 수출 불확실성 해소” 김영록 지사 “쌀·소고기 안정성 확보”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동차, 쌀·소고기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주력 산업이 비교적 잘 방어됐다는 점에서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광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예고됐던 고율 관세(25%) 부과가 15%로 조정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광주 완성차 공장의 생산과 수출 정상화, 협력 부품업체의 경쟁력 회복,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서 이뤄낸 조정 합의는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의 대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강기정

김영록

협력해 기업의 수출 판로 유지와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전용 공장과 AI 가전산업 생태계를 갖춘 지역으로, 수출 관세 변화는 지역 산업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다.

광주시 역시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주주 감소나 고용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내수 진작, AI 기반 프리미엄 제품 개발,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적 우려가 컸던 쌀 추가 개방

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를 관세 협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협상 결과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대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조정돼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경쟁력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무엇보다 불확실성의 해소는 전남 농수산물과 철강, 조선 등 주요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상 결과가 현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철강 등 전략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는 향후 이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며 지역 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한미정상회담 가시화…동맹·안보 등 숙제 산적

중동정세 등 각종 대외변수로 거듭 미뤄져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두 달이 가깝도록 미뤄져 온 한미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취임과 동시에 다진 한미 통상 파고를 넘어선 이 대통령으로서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벌이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소스설을 통해 관세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투자) 액수는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8월 중순을 전후해 정상회담이 이

뤄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각종 돌발 변수로 미뤄져 온 정상회담이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으나 매년 외부 상황 탓에 불발되면서 일각에선 우려를 자아냈다.

가장 중요한 동맹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나아가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조율도 본격화하면서 이 대통령은 대내외적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이날 타결된 통상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 간 설명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였던 타결 조건이나 그 해석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양국 간 미묘한 온도차가 나는 부분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른 상대국과의 협상을 발표하면서 즉석에서 합의 내용을 바꾸곤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유사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이번 협상안에 담기지 않은 분야에 대한 대미 협상 준비에도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조경/건축/인테리어/실산업에 사용

담장, 디자인에 취하라!

— 벽돌담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자연석같은 전통 시공식문양 '풍경벽'을
세계최초 한글조합식 문자블럭 '세종벽'을
조적, 물갈 등 별도의 잡 자재가 필요없이 셀프시공이 가능한 '키어블럭'
담장 조정 각종 건축인테리어블럭

풍경벽돌배재형 담장

벤스형 담장

한식기억형 담장

채스블럭 담장

기어블럭

풍경벽돌배재형 담장

벤스형 담장

한식기억형 담장

채스블럭 담장

기어블럭

담장은 예술이다

신제품

키어블럭(조립식조경용) PCT국제특허출원

NAVER 뉴정원산업

본사공장 전남 완순군 이양면 약포로862(홈플러스 629)
Tel. 061)373-9566~7 Homepage. www.jtbl.co.kr